

# ‘Let's DMZ’ 예비 브랜드

경기도 대표 축제 상표 출원 의뢰  
특허청, 3~4월쯤 심사결과 통보

경기도의 대표 축제 브랜드 ‘Let's DMZ(렛츠 디엠지·이미지)’가 상표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허청이 Let's DMZ의 상표 출원 심사 결과를 3~4월쯤 통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통해 Let's DMZ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공식 브랜드로 널리 사용할 계획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일 특허청에 Let's DMZ 상표 출원을 의뢰했다.

Let's DMZ는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열리는 Live in DMZ, DMZ 포럼, DMZ 다큐영화제, DMZ 마라톤·걷기대회 등 도의 다양한 축제를 아우르는 브랜드다.

쉽게 말해 DMZ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정책과 행사를 Let's DMZ에 담은 것이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평화공동선언의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도는 Let's DMZ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4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의뢰했다.

새로운 경기  
강성한 내실

### DMZ FORUM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  
2020. 11.19(금)~21.19(일)  
3일간 1박2일

### LIVE in DMZ

북한을 향한 문화·예술  
공연  
2020. 10.29(금)~11.2(일)  
3일간 1박2일

### DMZ RUN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걷기

### DMZ Docs

한반도 평화  
유산을 담은 DMZ  
다큐영화제  
2020. 11.19(금)~21.19(일)  
3일간 1박2일



통상 상표 출원 의뢰에서 최종 심사가 결정 나기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볼 때 4월쯤엔 상표 등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도가 Let's DMZ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도 관계자는 “특허 법인과 충분히 법률 검토를 했다. 영리 목적도 없다. 그런 만큼 무난하게 상표 출원·등록이 될 거라고 본다”며 “31개 시·군이 원할 경우엔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한반도 평화·번영을 상징하는 경기도 공식 브랜드로 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Let's DMZ의 가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데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